

새 책

▶자본주의의 적(정지아 지음)=한 국소설계의 대표적인 '리얼리스트' 정지아씨가 8년만에 선보인 새 소설집이다. 작가는 사실과 허구를 교묘히 섞어가며 세대의 흐름을 정밀하게 포착해낸다. 새로운 화법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특히 김유정문학상 수상작인 '우리는 어디까지 알까'에서 보여주는 언어적 세공이 탁월하다. 장비, 1만4000원.



▶부서진 여름(이정명 지음)='뿌리 깊은 나무' '바람의 화원'의 저자 이정명 작가의 새 장편소설이다. 탁월한 심리묘사와 치밀하게 구성된 서사, 극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전개, 작가만의 뛰어난 가독성을 담보한다. 거짓말과 오해가 인간의 삶에 개입해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지를 세 남녀의 비틀린 운명을 통해 그려낸다. 은행나무, 1만4500원.



▶코리안 탈무드(홍익희·김정완·이민영 지음)=저자들은 개별 유대인들의 성공 사례를 탐구하고 그 밑바탕에 있는 탈무드 사상을 연구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추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보편적인 성공 법칙으로 정리했다. 특히 저자들이 토론 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해 독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책과 영상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행복한국클럽, 1만8000원.



▶방구석 시간 여행자를 위한 중형무선 역사 가이드(카트린 파시히·알렉스 솔츠 지음, 장윤경 옮김)=시간 여행과 인류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개념 여행 안내서다. 빅뱅의 순간부터 공룡시대, 고대 문명, 중세, 전투 현장,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는 순간까지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여행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다룬다. 부기, 1만8000원.



▶그림자(안데르센 글, 고정순 그림, 배수아 옮김)='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등으로 잘 알려져있는 작가 안데르센의 숨겨진 명작 '그림자'가 고정순 작가가 만나 매력적인 그림책으로 탄생했다. 인간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자아에 관한 기묘한 이야기로, 우리가 외면하고만 싶어 하는 그림자를 돌아보게 한다. 길벗어린이, 1만7000원.



▶바다가 난장판이 되었어요(미셀 레드 지음, 양병현 옮김)=책은 바다 오염의 실태를 이야기하며 바다 쓰레기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나 바다로 흘러들어 그곳에 사는 생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 간결한 언어로 담담히 표현해낸다. 푸른숲주니어, 1만3000원.



버티고 살라는 바퀴, 안목 일깨우는 지렁이

곽정식 작가의 '충(虫)선생'

한자에 벌레충 들어간 21종 곤충 세계에 작지만 큰 지혜

책장을 펼치면 가장 먼저 이런 소개말이 보인다. "한자 이름에 벌레 '충(虫)'자가 들어간 생물체 스물한 종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곤충의 생태를 다룬 글들을 뒤엎었다고 여기겠지만 그 이상의 사연이 담겼다. 기업윤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35년을 기업에 근무했고 '생존과 자존' 등을 펴낸 곽정식 작가의 '충선생'이다.

곽 작가는 곤충들을 "동료 생명체"라고 불렀다. 그는 말한다. 인류는 그동안 정복과 개발, 구충과 박멸, 생산성 향상 등을 내세우며 동료 생명체와 자연에 대해 마치 타고난 우월성이 있는 것처럼 거침없이 행동했다고. 인간만의 역사를 써왔던 우리는 이제 생태계의 동반자이자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면서 동서양의 문화

를 넘나들며 벌레들을 불렀다. 특히 한자 문화권에 있는 동양인의 관찰과 묘사, 그 속에 숨어 있는 은유와 해학을 살폈다.

이 책에서 만나게 되는 21종의 생물은 잠자리, 매미, 꿀벌, 나비, 귀뚜라미, 반딧불, 쇠똥구리, 사마귀, 땅강아지, 방아깨비, 개미, 거미, 지네, 모기, 파리, 바퀴, 매뚜기, 개구리, 두꺼비, 지렁이, 뱀이다. 이들 곤충의 세계엔 작지만 큰 지혜가 있다. 저자는 어느 것 하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퀴는 우리가 사랑 대신 혐오를 보내는 대표적인 곤충이지만 곽 작가는 강점을 읽는다. 학자들은 최근 무너진 건물의 시멘트 벽돌 잔해를 비집고 생존자를 찾아내는 로봇을 개발하는 데 바퀴를 이 행동했다고. 인간만의 역사를 써왔던 우리는 이제 생태계의 동반자이자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면서 동서양의 문화



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버티고 천해도 살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살아야 한다. 어쨌든 살아야 한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버티고 살다 보면 바뀐다."

땅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없어 죽어가는 지렁이를 통해서 국가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이 상하고 국가마저 망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안목이 없는 지도자는 '맹도(盲導)'이다. 그러한 지도자를 따를 수 밖에 없는 무리나 백성은 '맹도(盲徒)'가 되고 만다." 자연 경성, 1만5000원. 전선희기자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망설이기만 한다면

배유정 신작 그림책 '밤버스'

혼자서도 괜찮을까? 짐이 너무 많은 걸까? 아니야, 그래도 뭔가 빠트린 것 같아.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어떡하지? 소녀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을 떠올린다. 저 멀리 소녀를 여딘가로 데려다줄 버스가 불빛을 켜 채 달려오고 있다. 소녀는 그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2018년 '나무, 춤춘다'로 불로냐 라가치상 '뉴 호라이즌 대상'을 받은 배유정 작가가 5년 만에 내놓은 그림책 '밤버스'. 어둡고 고요한 어느 밤에 길을 나선 소녀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밤버스'는 작가의 경험담이 녹아 있다. 2014년 지인과 함께한 남미 배낭여행은 그림책 속 주인공처럼 떠나기로 결정하고도 계속 질문했던 그가 있었다. 고민 끝에 다다른 여행

지에선 모든 것이 서툴렀고, 고되고 지친 나날의 연속이었다. 당시 여행하면서 느꼈던 "불확실한 설렘과 분명한 불안감"이 이 그림책의 토대가 되었다.

'밤버스'에선 여행자들을 태운 붉은 색 버스가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린다. 나무와 바위가 동등 떠 있는 곳을 지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바쁜 도시의 풍경이 나타난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더니 어느 순간 버스는 폭포 아래로 떨어진 다. 여행은 그렇듯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세계로 이끈다.

작가는 한 장 한 장 다른 색을 칠한 종이를 일일이 오려 붙이는 콜라주 방식으로 입체적인 화면을 완성했다.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 없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배경의 그림들은 동화적인 느낌



김을 자아낸다. 구석구석 동물이 나 여러 사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작은 그림들도 발견하게 된다.

'밤버스'를 읽는 어른들에게 여행이라는 모티브를 빌려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살아 가는 동안 선택하고, 도전하고, 놓쳐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만 또다시 기회가 오기에 아직 포기하지 않 이른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길벗어린이, 2만1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고명철의 '세계문학, 그 너머' 분단 체제 바깥 평화적 상상력의 연대

그는 두 개의 서문을 썼다. 2019년 세밀과 2020년 새해 틈새에서 압록강을 지적에 두고 쓴 글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머지않아 전 지구적인 코로나19가 닥쳤다. 그래서 2021년 봄의 문턱에서 '후기'를 덧붙였다. 그 둘을 나란히 실은 건 구미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저항, 이에 대한 전복과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팬데믹 시대에 공고해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서구중심으로 추진된 근대세계를 떠받치는 생산주의에 위기의 신호음"이 울린 만큼 "구미중심주의에 일반적으로 추동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이루는 지역들이 지닌 창조적 대안의 삶의 지혜와 그 실천을 공리"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문학평론가인 고명철 광운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세계문학, 그 너머'는 그 같은 지향점 아래 모인 연구 논문으로 채워졌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평론집 '문학의 종말'과 흐름을 같이하되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진 저서다. 그는 '새로운 세계문학'을 향해 가며 국민국가의 상상력을 넘는 재일조선인문학, 반식민주의와 반폭력을 향한 응전이 드러나는 오키나와문학, 근대의 난경을 헤쳐가는 아시아문학, 문자성과 구술성이 회통하는 아프리카문학을 탐색했다. 이들 문학은 책의 부제처럼 '탈구미중심주의·경계·해방의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저자의 고향인 제주를 배경으로 생산되는 4·3문학도 그 연장선에 놓인다. '4·3문학, 팔레스타인문학, 그리고 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에서 그는 4·3문학과 팔레스타인문학

을 겹쳐 읽으며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사회적 영토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된 상상의 영토를 대

상으로 4·3혁명과 팔레스타인 혁명이 수행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위한 문학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재일조선인문학' 편에 묶인 '김시중의 장면시집 '니이가타'의 문제의식'에서는 구미중심주의의 냉정과 분단에 갇히지 않고 창조적으로 해소하면서 활달히 넘어서 수 있는 한국문학의 가능성을 읽었다. 한국문학

과 일본문학의 '틈새'(혹은 '경계')에 있는 김시중만의 시문학이 그려내는 재일조선인이 겪는 분단과 냉전의 정치사회적 상상력은 국민주의와 국가주의에 기반을 둔 억압적 차별에 따른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김 시인의 첫 시집 '지평선'을 통해선 '재일의 삶'의 지평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어둠을 응시한 끝에 다다른 시적 전언('38선'이여, 당신을 그저 종이 위의 선으로 되돌려주려 한다.')에 은유가 서늘함과 동시에 뜨거워진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탈구미중심주의·경계·해방의 상상력'은 분단 체제의 바깥과 닿는다. 그것은 한반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상상과 공존의 평화로운 삶을 상상해보는 문학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했다. 소명출판, 4만5000원. 전선희기자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지금 전화로 상담하십시오!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